



수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신	경실련 20대 총선 유권자운동본부(본부장 양혁승,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문의	정치사법팀(김삼수 팀장, 유애지 간사, 정유림 간사 02-3673-2141),
일자	2016. 4. 8.(금)
제목	[보도자료] 경실련 20대 총선 주요 격전지 공약 평가 결과발표(총 2매)

“투표를 잘해야 합니다. 흡수저에게 꿈과 희망을!”

국가비전 뒷전, 구청장 후보로 전략한 국회의원

- 경실련, 서울 종로·서대문갑·노원병, 대구 수성갑 등 주요 격전지 4곳 공약평가
- 지역 유권자 표 의식한 지역민원성·선심성 공약 대부분
- 시설증대나 대규모 투자사업 대부분으로 당선 이후 ‘쪽지예산’ 폐해 불러올 것.

1. 경실련은 4월 8일(금) <경실련 20대 총선, 주요 격전지 후보자 공약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 삶이 날로 팍팍해지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국가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정책과제와 대안을 확립하는 것은 국회의원 선거의 매우 중요한 기능이다. 후보자들은 국가의 대표인 동시에 지역을 대표해야 하는 상황으로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을 조화롭게 도모해야 한다.
2. 이에 경실련은 선거 결과를 가늠하기 힘든 박빙 지역과 거물급 인사의 출마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 4곳을 선정해 후보자들의 공약을 비교 분석했다. 주요 분석 지표는 국회의원다운 공약을 제시했는지, 시도지사나 교육청의 권한은 아닌지를 살펴보는 국정공약과 지역공약의 비율, 그리고 서민경제와 민생회복을 위한 민생공약과 지역 개발공약의 비율을 분석했다.
3. 경실련이 검증한 격전지 4곳은 서울 종로·서대문갑·노원병, 대구 수성갑이다. 서울 종로의 경우 오세훈(새누리당) 후보와 정세균(더불어민주당) 후보 모두 지역민원성 공약에 치중하고 있다. 오 후보는 전체 50개 공약 중 국정공약은 1개(2.0%)에 불과했고, 민생은 9개(18.0%), 개발공약은 11개(22.0%)로 국정공약은 전무하고 정책수혜대상이 적은 지협적 공약이 대부분이다. 정 후보도 전체 63개 공약 중 국정공약 6개(9.5%), 민생공약 10개(15.9%), 개발공약 16개(25.4%)로 국정공약이 현저히 적었다. ‘KAL호텔 계획의 폐기’, ‘청년의무고용 확대’, ‘청년세’, ‘기초연금 인상’ 등 국가적 현안과 민생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구체성은 떨어진다. 두 후보 모두 국가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보다는 지역민원성 공약에 치우치고 국회의원의 권한이 아닌 시장·구청장, 교육청 권한의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4. 서울 서대문갑의 경우, 같은 지역에서만 다섯 번째 맞붙는 ‘숙명의 라이벌’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대학밀집지역이라는 특성, 청년실업 12.5%라는 현실 속에서 청년문제해결에 대한 국정철학이 부족하다. 이성현(새누리당) 후보가 정치쇄신, 서민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둔 것은 긍정적이 나, 국정공약이 전체 58개 공약 중 9개(15.5%) 불과하다. 민생공약은 12개(20.7%), 개발공약

은 17개(29.3%)로 지역민원성 공약이 높다. 청년문제와 관련해서도 국가청년일자리창출센터 외에 구체적 국정철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상호(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체 31개 공약 중 국정공약이 4개(12.9%)에 머물렀고, 민생공약 12개, 개발공약 5개(16.1%)였다. 전월세부담 완화 등 서민경제와 민생회복에 중점을 두는 등 민생관련 공약이 38.7%를 차지한 것은 긍정적이거나 이외 대부분 선언적 공약에 머물러 있다. 두 후보 역시 국회의원다운 공약보다는 권한을 넘어서 지역민원성 공약에 치우쳐 있다.

5. 서울 노원병은 '박근혜 키즈'로 불리는 이준석(새누리당) 후보와 제3당인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안철수(국민의당) 후보의 대결로 관심이 높지만, 두 후보 모두 공약이 매우 빈약하여 평가를 진행하는 의미가 전혀 없다. 이준석 후보와 안철수 후보 모두 국정공약이 1개씩으로 서민경제활성화, 일자리, 주거, 청년 문제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두 후보가 정책보다는 인물홍보나 정치공방에 주안점을 두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있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이준석 후보는 전체 16개 공약 중 민생공약이 복지관 건립 1개(6.2%)이고, 개발공약만 6개(37.5%)로 정책선거 의지 있는지 의문이다. 안철수 후보도 전체 18개 공약 중 민생공약 6개(33.3%), 개발공약 7개(38.8%)에 머물러 국정철학을 보여줄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두 후보는 정치공방보다 국정철학이 담긴 공약을 유권자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6. 마지막으로 대구 수성갑의 경우, 김문수(새누리당) 후보와 김부겸(더불어민주당) 후보라는 중진 정치인의 맞대결로 관심이 높지만, 표를 의식해서인지 두 후보 모두 지역구 개발공약에 치우쳐 있다. 김문수 후보는 전체 47개 공약 중 국정공약이 전무하고, 개발공약이 16개(34.0%)로 지역 개발에만 천착해 있어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된다. 이에 비해 민생공약은 개발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선결조건이 담긴 14개(29.8%)에 머물러 있다. 김부겸 후보는 전체 48개 공약 중 5개의 국정공약을 제시하고 있고, 민생관련 공약이 15개(31.3%)로 서민경제와 민생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거나 개발공약도 13개(27.1%)로 시의 전체적인 발전계획 속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어떻게 구현할지 의문이다. 두 후보 모두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만 개발하겠다는 논리는 문제가 크다. 또한 개발 공약의 경우 국비지원의 한계가 있는 만큼 민자유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이는 지역주민의 피해로 귀결될 수도 있다.
7. 모든 후보가 지역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지역민원성 공약에 치중하고 있어, 국회의원의 역할을 포기하고 구청장이나 구의원의 역할을 하겠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선거용으로만 급조되고, 재정추계도 제대로 없는 공약은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고, 당선 이후에 무리하게 업적을 세우기 위해 일명 '쪽지예산'의 폐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8. 후보자들은 남은 선거운동기간 동안 자신의 철학과 경력, 지역특성, 소속정당의 정책을 제대로 반영한 공약을 제시하고, 국가적인 문제에 천착하여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다 시한번 명확히 유권자들에게 밝혀야 한다. 아울러 유권자들이 정책에 대해 관심과 이해를 갖고 투표에 적극 활용할 때 정책선거가 실현될 수 있다. 그동안 경실련에서 진행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

별첨.1 : 20대 총선 주요 격전지 후보자 공약 평가

별첨.2 : 4대 격전지 후보자 공약 비교표

주요 격전지 후보 공약 평가

1. 취지

- 국회의원 정책선거의 목적은 선거에 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국가발전을 이룰 수 있고 국민의 삶과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공약으로 개발해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목표, 실시기한, 이행방법, 자원조달방안, 공약간의 추진 우선순위를 명시해 제시하는 것임.
- 특히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임. 가계부채 1200조원, 청년실업률 12.5%, 재정적자 167조 원, 전월세가격 43개월 연속 상승 등 파탄난 서민경제와 심화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여 국민들의 생존권을 확보해야 하는 엄중한 책임감으로 나서야 함.
- 이에 경실련은 주요정당 공약평가와 10대 헛공약 분석발표, 지역구 후보자의 개발공약 분석 발표에 이어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주요 격전지의 후보자 공약을 분석했음. 과연 국가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담고 있는지, 권한에 부합하고 임기내 달성가능(실현가능)한 공약인지, 공약에 따른 예산 배분 계획 및 자원 확보 방법은 적절한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자 함.

2. 평가 대상 격전지 및 후보자

- 서울 종로구 : 오세훈(새누리당)-정세균(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갑 : 이성헌(새누리당)-우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병 : 이준석(새누리당)-안철수(국민의당)
- 대구 수성갑 : 김문수(새누리당)-김부겸(더불어민주당)

3. 선정 이유 및 분석 방법

- 경실련 공약검증단은 선거 결과를 가늠하기 힘든 박빙 지역, 거물급 인사의 출마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 4곳을 선정, 지지율 20% 이상 후보자를 대상으로 검증에 들어감.
-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주요 격전지 후보자들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취합했고, 4월 2일 선관위에 등록된 선거공보를 포함하여 공약분석 작업에 들어감.
- 후보자의 전체 공약을 국정공약(입법·재정공약 포함)과 지역공약으로 분류하여 분석했고, 다음으로 민생공약(서민경제, 일자리, 복지 등)과 개발공약(재개발·재건축, 유치·조성·건립, 도로·교통 등)으로 분류하여 평가했음.

4. 평가지표

평가 지표	세부 평가 기준
권한에 따른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의원다운 공약인가? ○ 공약이 권한에 부합하는가? ○ 정책공약이 나라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담고 있는가? ○ 공약 목표가 국가 현황에 적절하게 설정되어있는가?
의제에 따른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약이 해당 정책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가? ○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가, 실현가능한가? ○ 공약에 따른 예산 배분 계획 및 자원 확보 방법이 적절한가? ○ 정책공약이 시급성과 정책 환경에 부합하고 실현 가능한가?

5. 총평

- 우리사회는 양극화·불평등해소, 민생회복과 복지정책, 정부혁신과 정치개혁, 청년과 교육문제, 그리고 남북관계에 이르기까지 매우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 국민의 삶이 날로 팍팍해지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국가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와 대안을 확립하는 것은 국회의원 선거의 매우 중요한 기능임.
- 4개 주요 격전지 모두 국회의원의 권한과 범위에 맞지 않는 공약을 제시한 경우가 대부분임. 시장·군수/교육감의 공약인지, 국회의원의 공약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심각함. 이러한 현상은 4개 격전지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지역구 선거의 공통된 현상임.
-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들고(입법), 행정부를 감시하고(국정감시),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예산심의)를 다루는 것이 주요 책무임. 후보자들이 국가의 대표인 동시에 지역을 대표해야 하는 상황으로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을 조화롭게 도모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더라도 지역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지역민원성 공약이 대부분이라는 것은 국회의원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고 구청장이나 구의원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음.
- 20대 총선을 맞아 주요 정당은 서민경제활성화, 일자리, 주거안정, 복지 등을 내세웠으나, 후보자들은 자신의 공약에서 이를 전혀 실현시키지 못함. 정당공약과 후보자공약이 다르고 재정추계도 제대로 없는 공약은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고, 당선 이후에 무리하게 업적을 세우기 위해 일명 ‘쪽지예산’의 폐해를 가져오게 됨.
- 이러한 현상은 정당이나 후보자들의 공약이 선거용으로만 급조되어 제출되기 때문임. 또한 선거구획정이 늦어지고, 주요정당의 공천이 지연되면서 정책생산과 홍보보다는 후보자 개인에 대한 홍보에 초점을 맞추는 문제도 큼.

- 구체적으로 4개 격전지 모두 국정공약이 20%를 넘는 곳이 없을 정도로 지역공약에 치우쳐 있으며, 민생공약보다 시설증대나 대규모 투자사업 등 개발사업 중심의 공약도 대부분임. 세부공약들이 매우 취약하고, 부분적이며, 로드맵과 예산계획·재원출처도 매우 피상적임.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임.
-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동네발전 공약으로만 선거에 임하는 것은 국정선거를 지방선거로 착각하는 것임. 지역일꾼이 되고 싶다면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라 다음 지방선거에 나와야 할 것임. 후보자들은 남은 선거운동기간 동안 자신의 철학과 경력, 지역특성, 소속정당의 정책을 제대로 반영한 공약을 제시하고, 국가적인 문제에 천착하여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다시한번 명확히 유권자들에게 밝혀야 함.
- 정책선거는 유권들이 정책에 대해 관심과 이해를 갖고 투표에 적극 활용할 때 실현 가능함. 그동안 경실련에서 진행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함.

2. 격전지별 후보자 공약 평가

1) 격전지 후보별 권한·의제별 공약비율

지역구	후보자	권한에 따른 분류(%)		의제에 따른 분류(%)	
		국정공약	지역공약	민생공약	개발공약
서울 종로	오세훈 (새누리당)	2.0	98.0	18.0	22.0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9.5	90.5	15.9	25.4
서울 서대문갑	이성현 (새누리당)	15.5	84.5	20.7	29.3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12.9	87.1	38.7	16.1
서울 노원병	이준석 (새누리당)	6.2	93.8	6.2	37.5
	안철수 (국민의당)	5.5	94.5	33.3	38.8
대구 수성갑	김문수 (새누리당)	0.0	100	29.8	34.0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10.5	89.5	31.3	27.1

- 4개 격전지 모두 국정공약이 최고 15.5%에 머물러 있고, 심지어 대구 수성갑의 김문수 후보(새누리당)는 국정공약이 하나도 없음. 대부분 시장·구청장 또는 교육감 등의 사업들인 지역공약에 치우쳐 있음. 국가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와 대안을 찾아보기 어려움.

- 대부분의 후보들이 ‘전선지중화’, ‘복지관건립’, ‘공영주차장 확충’, ‘학교 노후시설 개선’ 등 국정공약과 시장·구청장 공약, 교육감 공약의 차이를 구분 못한 채 지역민원성 공약채우기에 전념하고 있음.
- 가계부채 1200조원, 청년실업률 12.5%, 재정적자 167조 원, 전월세가격 43개월 연속 상승 등 파탄난 서민경제와 양극화·불평등의 심화에도 서민들의 생존권확보를 위한 민생공약보다는 시설증대나 대규모 투자사업 등 개발공약들이 여전히 높게 나타남. 서울 서대문갑 이성현 후보(새누리당)와 우상호 후보(더불어민주당), 대구 수성갑 김부겸 후보(더불어민주당) 정도만 민생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

2) 주요 격전지

■ 서울 종로 : 오세훈(새누리당) vs 정세균(더불어민주당)

- 오세훈, 지역민원성 공약 대부분...정책수혜대상 적은 지협적 공약
- 정세균, 국가현안 및 민생회복 공약 담고 있지만 구체성 떨어져.

① 공약 분류표

■ 권한에 따른 분류

구분	오세훈(새누리당)		정세균(더불어민주당)	
	개수 (비율)	주요내용	개수 (비율)	주요내용
국정공약 (입법·재정공약 포함)	1 (2.0%)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6 (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AL호텔 계획폐기 • 공기업·대기업 청년의무고용 확대 • 청년 좋은일자리 확충 자원 마련(청년세) • 기초연금 인상(소득하위 70% 30만원) • 학교 의무급식(무상급식)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역공약 (시·구 / 교육청 사업)	49 (9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당선 연장선 조기 착공, 봉제·주얼리 특화산업, 젊은이 창업지원, 관광·문화인프라, 청년 전월세 계약지원서비스, 학교시설개선, 공영주차장, 전선지중화, ‘햇빛센터’ 도입,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한지·한글박물관, 청소년수련관, 종로문학관, 운현궁·해화문 복원 등 	57 (9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당선 2017년 착공, 봉제·패션 산업특구, 주얼리 도제특구, 관광형 골목형시장 육성, 마을버스체계 개선, 소외계층 교육복지, 석면ZERO학교, 출산·육아 비용 경감, 어르신일자리, KAL 호텔부지 문화시설 및 대형버스주차장, 범죄 사각지대ZERO, 전선지중화, 걸어서10분대주차장 등
총계	50 (100%)		63 (100%)	

- 오세훈 후보의 국정공약은 단 1개로 전체 50개 공약 중 2%에 불과함. 반면 정세균 후보는 63개 공약 중 6개의 국정공약을 제시해 9.5%의 비율을 보임. 두 후보 모두 90% 이상 지역민원성 공약에 치중하고 있음을 보여줌.
- 공약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오세훈 후보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정도만 제시했을 뿐인데, 이마저도 국가차원의 재정 및 환경 여건을 고려해 보육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전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창신동·송인동에 확충하겠다는 지역민원성 공약임. 정책수혜대상 범위가 크지 않은 지협적인 공약임.
- 정세균 후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KAL호텔 계획의 폐기’, ‘공기업·대기업 청년의무고용 확대’, ‘청년 좋은일자리 확충재원 마련(청년세)’, ‘기초연금 인상’, ‘학교 의무 급식(무상 급식)’,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을 내세워 국가적 현안과 민생회복을 위한 공약들을 담고 있음. 다만 공약 추진전략, 규모, 자원마련 등 구체적인 내용은 빈약함.
- 오세훈 후보와 정세균 후보 모두 ‘전선지중화’, ‘공영주차장 확충’, ‘특화거리 조성’, ‘학교 노후시설 개선’, ‘학군조정’ 등 국정공약과 시장·구청장 공약, 교육감 공약의 차이를 구분 못한 채 지역민원성 공약채우기에 전념한 것으로 보임.

■ 의제에 따른 분류

구분		오세훈(새누리당)		정세균(더불어민주당)	
		개수 (비율)	내용	개수 (비율)	내용
민생 공약	서민 경제	3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전월세계약지원서비스 • ‘햇빛센터’(저층주택관리사무소) • 테마형 시장 활성화 	1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형 골목형 시장 육성
	일자리	2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좋은기업환경조성 • 젊은이 창업지원 	3 (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좋은 일자리 확충재원 마련(청년세) • 공기업·대기업 청년의무고용 확대 • 어르신 일자리 확충
	복지	4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서비스 원스톱 지원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어린이 놀이터 확충 • 학교 노후시설 개선 	6 (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육아비용 경감 • 보육의 공적서비스 확대 • 기초연금 인상(소득하위 70% 30만원)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장애인 기본적 삶 보장 • 소외계층 교육복지 강화
	총계	9 (18.0%)	총 50개 공약 중	10 (15.9%)	총 63개 공약 중
개발 공약	재개발 재건축	2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경관규제 완화 • 전선 지중화 	4 (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가능 • 자연경관지구 층수규제완화 • 북촌·서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 전선지중화
	유치/조 성/건립	5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암동 청소년수련관 건립 • 종로문학관 건립 • 한글기념관 건립 	8 (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로서부 종합복지관·종로 장애인회관 건립 • 문화예술복합시설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남동 문화복지센터 건립 • 운현궁·혜화문 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암 청소년수련관 건립 • 제2예술의전당 건립 • 해맞이동산 어린이전용공원 조성 • 국제주얼리트레이드센터 건립 • 혜화동 어린이전용극장·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 창신동 문화체육복합시설 건립
	도로/ 교통	4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당선 연장선 조기 착공 • 종로통 버스전용차로 • 이화사거리-청계천도로확장 • 율곡로 구조개선 	4 (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당선 연장선 2017년 착공 • 마을버스 체계 개선 • 율곡로 지하차도 조기완공 • 이화사거리-청계천 직진신호 신설
	총계	11 (22.0%)	총 50개 공약 중	16 (25.4%)	총 63개 공약 중

- 민생공약은 오세훈 후보 18%(9개), 정세균 후보 15.9%(10개)로 비슷했음. 두 후보 모두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장활성화를 내세웠을 뿐 특별한 공약이 없음. 오세훈 후보의 대 학가(이화·혜화동) ‘청년전월세계약지원서비스’ 공약이나 저층주택관리사무소인 ‘햇빛센터’ 도입은 전월세안정 등 서민주거안정 정책의 단편적 정책으로 보여짐.
- 개발공약은 오세훈 후보(22%, 총 50개 중 11개)보다 정세균 후보(25.4%, 총 63개 중 16 개)가 다소 많았음. 두 후보 모두 지역구내 시설 증대에 초점을 맞췄고, 신분당선 연장선 착공을 제외하고, ‘자연경관 규제완화’와 ‘전선 지중화’, 지역내 기념관과 복지센터 건립, 도 로 정비 등 변별력 없는 지역민원성 공약에 치중함.

② 평가

- 서울 종로의 최대 현안은 종로구 서북부 지역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한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사업이 반영돼 올해 상반기에 사업 확정 발표를 앞두고 있음. 오세훈 후보와 정세균 후보 모두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자신의 업적이라고 홍보했는데, 정책·공약 대결보다는 업적가로채기 대결로 변질되고 있음.
- 오세훈 후보는 ▲신분당선 연장선 조기착공 ▲자연경관지구 재건축 규제완화 ▲뉴타운사업 불가지역 개발지원 ▲채석장 공간 문화복지시설 설립 등을 중점적으로, 정세균 후보는 ▲ 동부지역 도시재생사업 완결 ▲서부지역 신분당선 내년 착공 ▲학교 화장실 '석면 ZERO' 실현 ▲북·서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음.
- 오세훈 후보의 공약은 국가의 미래지향적 비전을 담고 있기에는 지협적이고 미흡한 면이 많은 것으로 평가됨. 두 후보 모두 동별 마을공약까지 세세하게 제시한 것은 국정외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보다 지역구 발전에만 매몰되었다는 처사로 매우 당혹스러움.

■ 서울 서대문갑 : 이성현(새누리당) vs 이상호(더불어민주당)

- 이성현, 정치쇄신 긍정적...청년문제 일자리창출센터 외에 구체적 국정철학 없어
- 이상호, 전월세부담 완화 등 주거안정 공약 우수...대부분 선언적 공약에 머물러

① 공약 분류표

■ 권한에 따른 분류

구분	이성현(새누리당)		이상호(더불어민주당)	
	개수 (비율)	주요내용	개수 (비율)	주요내용
국정공약 (입법·재정공약 포함)	9 (1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 국회의원 윤리전담기구설립 • 국회의원 특권 대폭 축소 • 사교육비 연말정산 포함 • 아이들교육 '공교육화'추진 • 장애인 성별 취업률/소득격차 해소 • 50대 명퇴자 고용촉진 특별법 추진 • 장애인 의무고용률(공공 5%, 민간 4%) 상향 • 장애수당 급여 현실화 	4 (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등록금 인하 • 가계통신비 인하 •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하는 제도 도입 •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및 민간어린이집 지원 확대
지역공약 (시·구 / 교육청 사업)	49 (8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대문 다목적운동장 신설, 신촌 국가청년일자리창출센터 설립, 주부 지역사회 맞춤형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5천개, 마을 순환버스, 학교 화장실 개선, 국제글로벌인재센터, 골목길 CCTV, 사후면세점 입점 규제 등 	27 (8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촌·아현·서대문·홍제역 역세권 개발, 신촌상권활성화, 영천시장 현대화, 북아현뉴타운 사업 재조정,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 은퇴지원센터 건립, 노인일자리 창출, 안전한 통학로, 작은도서관, 노인복지센터 확충, 면세점 입점 규제 등
총계	58 (100%)		31 (100%)	

- 이성현 후보의 국정공약은 전체 공약의 15.5%(58개 중 9개)를 차지하고 있음. 주요 내용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윤리전담기구설립', '국회의원 특권 축소' 등 정치에 대한 국민불신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치쇄신을 위한 공약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임. 이외 '사교육비 연말정산 포함', '교육 공교육화', '장애인 차별 해소', '명퇴자 고용촉진 특별법 추진' 등 서민경제활성화와 장애인차별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대학생들이 많은 지역구의 특성상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국정철학이 드러나지 않은 것은 아쉬움.
- 반면 이상호 후보의 국정공약은 12.9%(31개 공약 중 4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학등록금 인하', '가계통신비 인하' 등 청년문제와 민생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특히 전월세대란을 겪고 있는 서울시의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주거부담 완화' 공약을 제

시한 점은 개혁적임. 그러나 문제의 근본해결보다는 일시적인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된 선언적 공약의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이성헌 후보는 ‘독립문 고가 철거’, ‘학교 화장실 개선’, ‘마을 순환버스 도입’, ‘주차장 확충’, ‘학군조정’ 등 국정공약과 시장·구청장 공약, 교육감 공약의 차이를 구분 못한 채 지역민원성 공약채우기에 전념한 것으로 보임. 이에 비해 우상호 후보는 동별 마을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일자리, 주거, 복지 등 국가적 문제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했어야 했음.

■ 의제에 따른 분류

구분		이성헌(새누리당)		우상호(더불어민주당)	
		개수 (비율)	내용	개수 (비율)	내용
민생 공약	서민 경제	2 (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교육비 연말정산 포함 • 영천시장 현대화 	5 (1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촌상권 활성화 • 웨딩거리·아현가구거리 지원 확대 • 영천시장 시설 개선 • 대학등록금 인하 • 가계통신비 인하
	일자리	4 (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대명퇴자 고용촉진특별법 • 주부 지역맞춤형 일자리 • 어르신 일자리 5천개 • 국가청년일자리창출센터 설립 	4 (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기업·일자리 창출 • 50~60대 은퇴지원센터 • 노인 일자리 창출 • 신촌 청년창업일터 설립
	복지	6 (1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성별 취업률·소득격차 해소 •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 장애수당 급여 현실화 • 장애인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강화 • 신촌 자취생 맞춤형 지원센터 설립 • 학교화장실 시설개선 	3 (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및 민간어린이집 지원 확대 •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확충 • 화장실·급식시설 개선
	총계	12 (20.7%)	총 58개 공약 중	12 (38.7%)	총 31개 공약 중
개발 공약	재개발 재건축	4 (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문 고가 철거 • 균형발전촉진지구 재추진 • 유진상가 부근 대규모 개발 • 추계대 옆 공공부지 신북아현역 개설 	2 (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촌·아현·서대문·홍제역 역세권 개발 • 북아현뉴타운 사업 재조정
	유치/조 성/건립	8 (1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대문 다목적 운동장 신설 • 서대문 여성회관 신설 • 공영어린이영어도서관 건립 • 국제글로벌인재센터 설립 •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 아현문화센터 신설 • 충현문화체육관 신설 • 홍제 문화복지센터 건립 	2 (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아현동 다목적 문화복합센터 건립 • 보훈회관 건립
	도로/ 교통	5 (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한 연기된 경전철 착공 • 마을 순환버스 도입 •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 	1 (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희-신촌경유 서부경전철 조기착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촌 유탄구간 추가신설 • 마을버스 정류장 신설 		
	총계	17 (29.3%)	총 58개 공약 중	5 (16.1%)	총 31개 공약 중

- 이성헌 후보(20.7% / 58개중 12개)와 이상호 후보(38.7% / 31개 중 12개)의 민생공약 개수는 12개로 같지만 전체 비율로 봤을 때는 우 후보가 민생공약에 더 치중한 것으로 평가됨. 하지만 내용면에서는 두 후보 모두 큰 차이가 없었음. 이 후보는 ‘장애인 복지와 차별 해소’, ‘사교육비 연말정산 포함’, ‘주부 지역맞춤형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5천개’, ‘국가청년일자리창출센터’ 설립 등에 중점을 두고, 우 후보는 ‘신촌상권 활성화’, ‘대학등록금·가계통신비 인하’, ‘사회적 기업·일자리 창출’, ‘은퇴지원센터’,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에 중점을 둠.
- 개발공약은 이상호 후보(16.1% / 전체 31개 중 5개)보다 이성헌 후보(29.3% / 전체 58개 공약 중 17개)가 많았음. 특히 이 후보는 동별 마을공약까지 세세하게 제시하였는데, 대부분 시설 증대와 투자사업으로 정책수혜자가 지역에 한정된 지역민원성, 선심성 공약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 경로당·초등 강당·마을버스 정류장·체육관 설치, 신촌 U턴구간 신설 등 국회의원의 역할보다는 시장이나 구청장 공약에 천착하고 있음.

② 평가

- 연세대 81학번 동기로 서대문갑 지역에서만 다섯 번째 맞붙어 ‘숙명의 라이벌’로 불리는 이성헌 새누리당 후보와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역도 주요 격전지 중의 하나임.
- 청년 실업률이 청년실업이 12.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많은 대학가가 밀집한 지역구임에도 등록금, 청년실업, 주거 문제 등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쉬움.

■ 서울 노원병 : 이준석(새누리당) vs 안철수(국민의당)

- 이준석, 국정공약 전무...정책선거 의지 있는지 의문
- 안철수, 개발공약에 집중...국정철학 보여줄 공약 전무

① 공약 분류표

■ 권한에 따른 분류

구분	이준석(새누리당)		안철수(국민의당)	
	개수 (비율)	주요내용	개수 (비율)	주요내용
국정공약 (입법·재정공약 포함)	1 (6.2%)	• 자유학기제 개선	1 (5.5%)	• 미래일자리위원회 구성
지역공약 (시·구 / 교육청 사업)	15 (93.8%)	• 지하철 4호선·7호선 급행화, 노원역 4호선·7호선 환승로 개선, 경전철 마들역 연장, 수락산2호터널 검토, 수락산역 에스컬레이터, 중랑천 교량, 뉴타운용적율 50% 확보, 세입자 임대아파트 우선권 확보 개발, 8종 우범자 정보공개·관리, 복지관건립, 공영주차장 확충 등	17 (94.4%)	• 창동차량기지·도봉면허시험장 개발, 수서발KTX 창동-의정부 연장,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정상화, 동북권 순환 경전철 추진, 청소년 문화의집, 지역밀착형 마을복지, 실버카페, 복합문화공연시설, 노원 제3체육센터, 마을미디어지원센터, 인생이모작센터,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등
총계	16 (100%)		18 (100%)	

-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전체 16개로 매우 빈약하고 국정공약 역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자유학기제 개선’ 1개(6.2%)에 불과함. 이외 노원병을 지나는 4·7호선 급행열차 도입 등 지역교통관련 공약에 집중하고 있음.
- 안철수 후보 역시 전체 18개 공약중 국정공약은 ‘미래일자리위원회 구성’ 1개(5.5%)에 불과하고, 2014년 지방선거때도 등장했던 창동상계 개발공약을 제시했지만 기존의 방식과 차별화되는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고, 자칫 말의 성찬으로 끝날 가능성도 큼.
- 두 후보의 ‘복지관 건립’, ‘중랑천 교량’, ‘마을복지 커뮤니티센터’, ‘전철 환승로 개선’, ‘상계로 확장’ 등은 서울시와 노원구의 사업으로 국정공약과 구분 못한 채 표를 의식한 지역민원성 공약채우기에 전념한 것으로 보임.

■ 의제에 따른 분류

구분	이준석(새누리당)		안철수(국민의당)	
	개수 (비율)	내용	개수 (비율)	내용
민생공약	서민경제	0 (0.0%)	0 (0.0%)	
	일자리	0 (0.0%)	3 (16.6%)	• 미래일자리위원회 구성 • 상업·업무단지 조성으로 일자리창출 • 어르신일자리 위한 실버카페
	복지	1 (6.2%)	• 상계5동 복지관 건립	3 (16.6%)

	총계	1 (6.2%)	총 16개 공약 중	6 (33.3%)	총 18개 공약 중
개발 공약	재개발 재건축	2 (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타운 용적을 50% 유연성 있게 확보 • 세입자 임대아파트 우선권 확보하여 개발 추진 	2 (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동차량기지·도봉면허시험장 개발 • 상계주공8단지 종상향 통한 재건축
	유치/조 성/건립			2 (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문화시설과 대규모 공연시설 조성 • 노원 제3체육센터 건립
	도로/ 교통	4 (2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 4호선·7호선 급행화 • 노원역 4호선·7호선 환승로 개선 • 경전철 마들역 연장 • 수락산 2호터널 조기 검토, 	3 (1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서발 KTX 창동-의정부 연장 • 상계로 기업은행사거리-동막골 입구 확장 공사 • 상계역·방학역 연결 동북권 순환 경전철 추진
	총계	6 (37.5%)	총 16개 공약 중	7 (38.8%)	총 18개 공약 중

- 민생공약에 있어서 이준석 후보는 ‘상계5동 복지관 건립’이라는 선심성 공약 외에 서민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복지 공약이 전무함. 이에 비해 안철수 후보는 ‘상업·업무단지 조성 통한 일자리창출’, ‘어르신 일자리 위한 실버카페’, ‘인생이모작 센터’ 등 몇 개 민생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보육·청년·주부 등에 대한 공약은 없어 공당의 대표로서 국가현안에 대한 비전을 전혀 보여주지 못함.
- 이준석 후보는 구체적인 공약이 없어 평가하기 어렵지만, 안철수 후보의 경우 ‘상업·업무단지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너무 피상적인 공약임. 특히 창동 차량기지·도봉면허시험장 개발 공약은 자칫 민자유치를 통한 대규모 투자사업의 하나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음.

② 평가

- 서울 노원병은 ‘박근혜 키즈’로 불려온 새누리당 이준석 후보와 제3당인 국민의당의 상임공동대표인 안철수 후보가 맞붙는 곳임. 그러나 두 후보의 국정공약은 매우 빈약하고, 지역공약 역시 개발사업과 투자사업에 초점을 맞추며 서민경제활성화, 일자리, 주거, 청년 문제 등은 외면 받고 있음. 평가의 실익이 전혀 없음.
- 노원병은 부실한 정책·공약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정치적 이해’에 얽힌 공방에 치중하면서 정책선거를 방해하는 지역 중 하나임. 무엇보다 노원병 지역은 물론 서울, 국가의 지역현안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가 낮아 보이고, 피상적이고 임기응변적 공약의 한계가 여실함.
- 두 후보 모두 국가의 미래지향적 비전을 담고 있기에는 지협적이고 미흡한 면이 많은 것으로 평가됨. 국정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보다 정략적 정치행위에만 집중하고 있음. 지금이라도 자신의 철학과 경력, 지역특성, 소속정당의 정책을 제대로 반영한 공약을 제시

하고, 국가적인 문제에 천착하여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다시한번 명확히 유권자들에게 밝혀야 할 것임.

■ 대구 수성갑 : 김문수(새누리당) vs 김부겸(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국정공약 전무하고 개발공약에만 천착...무분별 난개발 우려
- 김부겸, 민생공약 긍정적...예산 확보, 시 전체 발전계획과 유기적 연계 부족

① 공약 분류표

■ 권한에 따른 분류

구분	김문수(새누리당)		김부겸(더불어민주당)	
	개수 (비율)	주요내용	개수 (비율)	주요내용
국정공약 (입법·재정공약 포함)	0 (0.0%)		5 (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40% 이상 확대 의무화 • 자영업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및 고용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감면 범위 확대 • 남녀 임금격차 현행 36%에서 OECD평균인 15%까지 하향 •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지역공약 (시·구 / 교육청 사업)	47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부권 신공항 건설, 수성 워터프런트, 수성조이폴거리, 대구레인보우파크, 일자리 2만개, 수성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도시철도 3호선 연장, 광역철도 고산 가천역 신설, 정보통신기술체험관, 수학문화관, 꿈나무 안심학교, 무료와이파이존 구축 등 	43 (8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부권 신공항, 영호남 동서광역철도망, 금호강 미라클, 수성힐링테마파크, 스포츠 테마파크, 국립한국문학관 유치, 도시철도 3호선 연장, 공공도서관 건립, 여성 안심귀가지킴이, 어르신 주치의,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도시가스보급 확대, 공용주차장, CCTV확대 등
총계	47 (100%)		48 (100%)	

- 김문수 후보와 김부겸 후보 모두 상당히 많은 공약을 제시하고 있고, 동별 마을공약까지 세세하게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두 후보 모두 표를 의식해서인지 상대적으로 많은 공약이 개발에 치우쳐져 있고, 국가적 현안과 의제는 외면받고 있음. 김문수 후보는 중진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국정공약은 전무하고, 오로지 지역개발공약에 천착하고 있음.

- 이에 비해 김부겸 후보는 10.5%(48개 중 5개)의 국정공약을 제시하고 있는데,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 ‘자영업자·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및 부가가치세 감면 확대’, ‘남녀 임금격차 하향’,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 기간연장’ 등 민생과 관련한 공약들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김문수 후보나 김부겸 후보가 제시한 개발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비지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민자유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결국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도 큼. 또한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업은 대구시가 시 전체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하는데,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만 개발하겠다는 논리로 추진하는 것은 큰 문제임.

■ 의제에 따른 분류

구분		김문수(새누리당)		김부겸(더불어민주당)	
		개수 (비율)	내용	개수 (비율)	내용
민생 공약	서민 경제	0 (0.0%)		6 (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근로자, 알바생 임금체불 예방 • 남녀 임금격차 현행 36%에서 15%까지 하향 • 자영업자·소상공인 부가가치세 감면 범위 확대 • 자영업자·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및 고용보험료 지원 •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신천시장 시설개선
	일자리	6 (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2만개, 일자리특별법 제정 • 대구레인보우파크 조성(5,000개) • 수성알파시티 의료지구 병원·기업·연구소 유치(2,500개) • 수성알파시티 ICT기업 등 지식기반산업 구축(6,000개) • 수성알파시티 유통상업지구 조성 등(3,500개) • 대구 수학문화관, 교육체험관 조성(200개) • 청년·여성·어르신·장애인 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 	2 (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40% 이상 확대 의무화 •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교육 강화
	복지	8 (1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건강관리담당자 배치 •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 인프라 확충 • 치매위험 어르신 관리 • 맞벌이부부 아이 안전공간 확충 • 꿈나무 안심학교 • 맞춤형 안심보육제도 확산 • 범어 실버복지관 건립 • 학교주변 통학안전 	7 (1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안심귀가지킴이’ • 70세이상 어르신주치의 • 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 설치 • 어르신 전용 영상미디어센터 ‘청춘’ •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 범어·만촌 실버복지센터 • 어린이·노인보호구역 확대

	총계	14 (29.8%)	총 47개 공약 중	15 (31.3%)	총 48개 공약 중
개발 공약	재개발 재건축	2 (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촌지역 중 상향 • 범어지역 중 상향 	2 (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어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중 상향 • 만촌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중 상향
	유치/조 성/건립	8 (1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부권 신공항 건설 • 수성 워터프런트 • 수성 조이풀거리 • 대구레인보우파크 • 수성알파시티 의료지구 병 원·기업·연구소 유치 • 대구 수학문화관 • 미래 정보통신기술체험관 • 범어시민공원 건립 	5 (1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부권 신공항 건설 • 금호강 미라클 • 수성힐링테마파크 • 스포츠테마파크 • 콘텐츠·문화산업클러스터 및 수성의료지구청년기업타운
	도로/ 교통	6 (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성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 도시철도 3호선 연장 • 광역철도 고산 가천역 신설 • 신매-안심 도로·교량 건설 • 범안삼거리-황금네거리 도 시계획도로 개통 • 황금권 롯데캐슬 앞 고가도 로 철거 	6 (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호남 동서광역철도망사업 • 범안삼거리-황금동 도시계 획도로 개통 • 도시철도 3호선 연장 • 고산3동주민센터-매호천 도로 조기착공 • 시지노인병원-효성백년가약 아파트 도로 조기착공 • 황금1동 고가교 철거
	총계	16 (34.0%)	총 47개 공약 중	13 (27.1%)	총 48개 공약 중

○ 민생공약에 있어서도 김문수 후보(29.8%, 47개 중 14개)는 서민경제활성화보다는 ‘대구레인보우파크’, ‘수성알파시티’ 등 개발을 통한 일자리 확충에 중점을 두어 개발중심의 전근대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냄. 복지공약 역시 미시적이고 선언적인 공약들에 치중하고 있음.

○ 이에 비해 김부겸 후보(31.3%, 48개 중 15개)는 김문수 후보와 공약 수는 비슷하나, ‘청년근로자·알바생 임금체불 예방’,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여성안심귀가’, ‘어르신 주치의’, ‘인생이모작 센터’ 등 좀 더 구체화된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② 평가

○ 새누리당 김문수 후보와 더민주 김부겸 후보가 맞붙은 대구 수성갑은 정치적 불모지인 대구에서 야권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지역구임. 최근 김문수 후보의 현수막 공약 베끼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도 뜨거워지고 있음.

○ 두 후보 모두 지역 개발공약으로 ‘남부권 신공항 건설’을 제시하고 있지만, 총선 정치쟁점화되는 상황에서 지역간 합의를 이끌어내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또한 김문수 후보가 공약한 ‘대구레인보우파크’ 공약은 이곳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쉽지 않은데다 해제할 경우 무분별한 난개발이 예상되어 논란임.

4대 격전지 후보자 공약 비교표

■ 서울 종로 : 오세훈(새누리당) vs 정세균(더불어민주당)

분야	오세훈(새누리당)	정세균(더불어민주당)
지역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 인프라 강화 맛·멋·길·집·담을 엮은 세계적 관광도시 육성 봉제, 주얼리, 전통문화 등 특화산업 육성 중소기업 기업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봉제·패션 산업인프라 구축(패션산업특구) 주얼리산업 글로벌경쟁력 확충(도제특구) 문화 콘텐츠 창작역량 강화 전통문화 고품격 관광산업화 관광형 골목형 시장 육성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가능
일자리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젊은이 창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좋은일자리 확충 재원마련(청년세) 공기업, 대기업 청년 의무고용 확대
교통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분당선 연장선 조기 착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버스 체계 혁신 신분당선 연장선 2017년 착공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노후시설 개선 글로벌 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외계층 교육 복지 강화 석면 ZERO 학교 실현 학교 의무급식(무상급식) 지속 추진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인프라 강화 복지서비스 원스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의 공적서비스 확대 출산 및 육아비용 부담 경감 기초연금 인상(소득하위 70% 30만원) 어르신 일자리 확충 장애인 기본적삶 보장/사회참여 촉진 종로서부종합복지관·종로장애인회관 건립
주민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영주차장 확충 주민 목소리 반영한 도시재생 공공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죄 사각지대 ZERO(방법초소) 걸어서 10분대 주차장 자투리땅 휴식공간(쌈지공원) 시민 운동시설·강좌 생활재난 긴급구호 북촌·서촌 주민피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재동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추진 KAL 호텔 계획폐기 문화시설 유치 및 공공 대형버스주차장 확보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암동·평창동 · 신분당선 역세권 개발 · 자연경관지구 규제 완화 · 한지박물관 건립 · 홍제천·백사실계획 명소화 · 부암동 청소년수련관 건립 · 문학동네 조성 및 종로문학관 건립 ○ 청운효자동·사직동 · 신분당선 역세권 개발 · 공영주차장 확충 · 한글기념관 건립 · 테마형 시장 활성화 · 전선 지중화 지속추진 ○ 삼청동·가회동 · 청결한 거리 특별구역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암동·평창동 · 신분당선 조기 완공 · 자연경관지구 층수 규제완화 · 가스충전소를 문화충전소로, 문화예술 복합시설 건립 · 부암 청소년수련관 건립, 부암어린이집 신축이전 ○ 청운효자동·사직동 ·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 GTX-A·신분당선 복합역사 설치 · 세종로공원 '제2예술의전당' 건립 · 서부지역 복지관 건립 · 해맞이동산 어린이전용공원 조성 ○ 삼청동·가회동 · 북촌 지구단위계획 실태조사·운영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영주차장 확충 • 전선 지중화 추진 • 자연경관지구 규제 완화 ○ 무악동·교남동 • 어린이 놀이터 확충 • 교남동 문화복지센터 건립 • 독립문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 행촌 성곽길 등산 진입로 조성 ○ 종로 1~6가동 • 돈화문로-낙원상가 거리 시범육성 • 율곡로 구조개선 추진 • 운현궁 복원 • 종로통 버스전용차로 조속 추진 • 이화동사거리-청계천도로 확장 ○ 이화동·혜화동 • 혜화문 복원과 성곽길 연결 • 시인의 거리 조성 및 시문학관 건립 • 이화동사거리-청계천 도로 확장 • 청년 위한 전월세 계약 지원서비스 ○ 창신동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저층주택 관리사무소 ‘햇빛센터’도입 • 도시재생 공공지원 확대 • 채석장 ‘체육공원 및 복합문화예술컴플렉스’ 건립 • 창신1동 특화거리 활성화 • 낙산공원 경관 자원화 ○ 송인동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저층주택 관리사무소 ‘햇빛센터’도입 • 도시재생 공공지원 확대 • 동묘공원 주변경관개선 및 문화재정비 	<p>후 재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청테니스장 지하주차장 신설 • 북촌 전통문화체험 특별구역 조성 • 전선지중화 지속 확대 ○ 무악동·교남동 • 홍파·송월동 마을통행로 엘리베이터 설치 • 교남·행촌 성곽마을 공동체 활성화 • 도시농업 선도지역 육성 • 교남파출소 신축 • 인왕산-안산 친환경 등산로 구축 ○ 종로 1~6가동 • 종로3가 주얼리 ‘도제특구’ 지정 • 국제주얼리트레이드센터 건립 • 창덕궁·종묘 주변 세계문화유산특별정비구역 지정 • 율곡로 지하차도 조기 완공 • 이화사거리-청계천 직진신호 신설 • 시장골목환경개선: 오토바이전용주차공간 • 동대문성곽공원 민족여명 기념동산 복원 ○ 이화동·혜화동 • 혜화동 어린이전용극장, 배트민턴 전용구장 건립 • 명륜동 공영주차장 및 도서관 건립 •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증축 • 낙산공원 가로수길 조성 ○ 창신동 • 패션봉제산업특구 지정 • 창신2동 진입로 좌회전 가능케 개선 • 창신동 기동대·쓰레기장 터에 대규모 문화체육복합시설 ○ 송인동 • 송인2동 구립어린이집 신설 • 동망산 유아숲체험장 조성 • 동신초·한성여중 통학 학군조정
--	---	--

서울 서대문갑 : 이성현(새누리당) vs 이상호(더불어민주당)

분야	이성현(새누리당)	이상호(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 국회의원 윤리전담기구 설립 • 국회의원 특권 대폭 축소 	
지역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대문 전용 다목적 운동장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촌역·아현역·서대문역·홍제역 역세권 개발 • 신촌 상권 활성화 • 연희동 특화거리 조성·지원 확대 • 웨딩거리·아현가구거리 지원 확대 • 영천시장 시설 개선 • 북아현뉴타운 사업 재조정
일자리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촌에 국가청년일자리창출센터 설립 • 50대 명퇴자 고용촉진 특별법 추진 • 주부 지역사회 맞춤형 일자리 창출 • 어르신 일자리 5천개 이상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기업, 사회적 일자리 창출 • 50,60대 은퇴지원센터 건립 • 노인 일자리 창출 • 신촌 청년창작일터 설립

교통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 마을 순환버스 도입(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희-신촌경유 서부경전철 조기착공 • 상가 앞 주차시간 확대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화장실 시설 개선 • 아이들 교육 '공교육화' 추진 • 사교육비 연말정산 포함 • 공영 어린이 영어도서관 건립 • 국제 글로벌 인재센터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등록금 인하 • 안전한 통학로 확보 • 화장실·급식시설 등 교육환경 개선 • 서울형 혁신 교육지원 혜택 지속 • 작은 도서관 확충 • 청소년 문화의집 확충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대문 여성회관 신설: 여성 일자리+복지종합서비스 • 장애인 성별 취업률/소득 격차 해소 • 장애인 의무고용율(공공5%,민간4%) 상향 • 장애인 복지센터 건립 • 장애인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강화 • 장애수당 급여 현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민간 어린이집 지원 확대 • 경로당, 어르신쉼터,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등 확충 • 북아현동 다목적 문화복합센터 건립 • 보훈회관 건립
주민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목길 방법용 CCTV 대폭 확대 • 홍제천-안산-북한산 생태벨트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월세 등 주거비부담완화 제도 도입 • 가계통신비 인하 • 안산-인왕산 등산로 연결 • 궁동산 환경 개선 • 안산 자락길, 인왕산 산책로 정비 • 홍제천 보행환경 개선 • 주민자치센터 자치회관 신설·리모델링 • 학교 체육시설 이용료 합리화 • 연희동 면세점 추가입점 규제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별안 내 10 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희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한 연기된 경전철 조속 착공 • 내부순환로 방음벽 확대 및 분진차단 • 경의선철도 방음벽 강화 • 동진빌라 등 자연경관지구 해제 • 연희초 앞 사후면세점 입점 불허 • 연희동 경로당 추가 신설 • 궁동산 체육관 주차장 확보 •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 확보 ○ 신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취생 맞춤형 지원센터 신설 • 주차장 신설로 신촌상권 활성화 기여 • 신촌지역 관광·교육특구 지정 추진 • 신촌 '신대학로'로 육성 • 유턴구간 추가신설 교통편의성 증대 ○ 북아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계대 옆 공공부지 신북아현역 개설 • 신북아현역 내 아현문화센터(청소년문화아카데미) 신설 • 재개발구역 도로/상·하수도 조기개선 • 마을버스 배차간격 단축 / 정류장 신설 ○ 충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의선철도 복개 후 충현문화체육관 신설 • 서대문 여성회관 신설 • 미동초 경의선 철길 방음벽 확대 ○ 천연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문 소공원 부지 지하주차장 신설 • 영천시장 현대화 • 독립문 고가 철거 • 극동/삼호아파트 앞 횡단보도 신설 • 삼호아파트 진입로 교통신호 개선 ○ 홍제1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균형발전촉진지구 재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진상가 부근 대규모 개발로 홍제역 상권 활성화 • 홍제1동 동사무소/파출소 리모델링·증축 • 홍제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 고은초등학교 강당 신설 • 내부순화로 방음벽 강화 및 분진예방 • 유턴구간 추가로 교통편의성 증대 ○ 홍제2동 • 유턴구간 추가로 교통편의성 증대 • 서부수도사업소 이전 후 홍제문화·복지센터 건립 • 홍제2동 주민센터 내 엘리베이터 신설 • 마을버스 배차간격 단축/정류장 신설 	
--	---	--

■ 서울 노원병 : 이준석(새누리당) vs 안철수(국민의당)

분야	이준석(새누리당)	안철수(국민의당)
지역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동차량기지, 도봉면허시험장 38만㎡ 부지 서울 새중심지로 개발(2021년까지 1조원 예산 확보)
일자리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상업·업무단지를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 • 미래일자리위원회 구성(1년 예산 1%인 약 4조원 과학기술·창업 등 미래먹거리에 투자)
교통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앞 신호/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 지하철 4호선, 7호선 급행화(대피선 설치역당 약 1,000억 원) • 노원역 4호선, 7호선 환승로 개선(40억원) • 경전철 마들역 연장 • 수락산 2호 터널 조기 검토(70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서발 KTX 창동-의정부 연장 •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일산-의정부-퇴계원) 불공정 통행료 정상화 • 동부간선도로 및 수락고가차도 방음벽 설치 완료 • 상계로 기업은행사거리-동막골 입구 확장 공사 • 상계역·방학역 연결 동북권 순환 경전철 추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학력 증진 • 자유학기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문화의집(리더십센터) 건립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밀착형 마을복지 커뮤니티센터 • 어르신일자리 위한 실버카페 조성
주민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문화시설과 대규모 공연시설 조성 • 노원 제3체육센터 건립 •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 건립 • 7호선 수락산역 4번출구, 4호선 상계역과 당고개역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계1동 • 수락산역 4번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 수락산로 끝-중랑천 교량 설치 ○ 상계2동 • 중앙시장 공용화장실 설치 ○ 상계 3,4동 • 뉴타운 용적을 50% 유연성있게 확보 • 세입자 임대아파트 우선권 확보하여 개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계1동 • 주민센터 내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 상계2동 • 인생이모작센터 건립 :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후 재취업 인프라 조성 ○ 상계3,4동 • 상계주공8단지 중상향 통한 재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종 우범자 정보공개·관리 강화 ○ 상계5동 • 복지관 건립 • 공영주차장 확충 ○ 상계8동 • 중량천 접근성 위한 지하통로 개설 ○ 상계9동 • 동북선 경전철 마들역까지 연장 	
--	---	--

■ 대구 수성갑 : 김문수(새누리당) vs 김부겸(더불어민주당)

분야	김문수(새누리당)	김부겸(더불어민주당)
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부권 신공항 건설 • 남부권 초광역 경제공동체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부권 신공항 건설(국비 약8조원) • 영호남 동서광역철도망 사업(국비 4조 8,987억 원) • 남부권 광역경제권 구축(8개 광역)
지역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성 워터프런트 : 금호강 친환경 생태·교육·문화 체험벨트 조성 • 수성 조이풀거리 : 범어, 만촌, 신매광장, 대구스타디움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 이용한 젊음의 거리 조성 • 대구레인보우파크 : 대구스타디움 일대 레저·관광·문화명소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호강 미라클 : 수질·생태복원, 레저·스포츠공간확보, 친환경에너지 주택시범단지 조성(국비:600억원,시비: 400억 원) • 수성힐링테마파크 : 반려동물 테마파크, 도심 속 치유의 숲 조성 • 스포츠 테마파크 :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수성트램 설치 • 콘텐츠·문화산업클러스터 및 수성의료지구청년기업타운 : 대구스타디움 일대 공연문화예술진흥원, 대구콘텐츠진흥원, 대구무대예술복합센터 건립
일자리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2만개, 일자리특별법 제정 • 대구레인보우파크 조성(5,000개) • 수성알파시티 의료지구 병원·기업·연구소 유치(2,500개) • 수성알파시티 ICT기업 등 지식기반산업 구축(6,000개) • 수성알파시티 유통상업지구 조성 등 (3,500개) • 대구 수학문화관, 교육체험관 조성(200개) • 수성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 금호강 수성워터프런트 • 청년·여성·어르신·장애인 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40% 이상 확대 의무화 • 청년근로자, 알바생 임금체불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습적 임금체불의 경우 : 체불임금 +부가금(100%) 지급 • 남녀 임금격차 현행 36%에서 OECD 평균인 15%까지 하향. •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교육 강화 • 자영업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및 고용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감면 범위 확대 •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국립한국문학관 유치 및 '치맥페스티벌' 아시아 대표축제로 육성
교통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철도 3호선 연장 • 광역철도 고산 가천역 신설(구미-대구-경산) • 신매-안심 도로 및 교량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매내거리-대구선 북편도로 -② 매호-서호동 도로, 교량 2개 • 범안삼거리-황금네거리 도시계획도로 개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안삼거리-황금동 도시계획도로 개통 • 도시철도 3호선 대구스타디움-시지-혁신도시까지 연장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 수학문화관(대구미술관 옆) • 수성 교육국제화특구(국제학교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명품강의 공급(사교육 대체) • 진학·진로 전략지원센터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고 외국어교육 등) • 만촌동 화랑공원 미래 정보통신기술 체험관 건립 • 범어 아트스트리트 진학지도전문센터 설립(진로상담, 입시정보 등) •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기금(2020년까지 100억원 확충) • 만촌3동, 범어4동 학교주변 통학안전 및 교통대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학교현장의 자율적 예방활동과 사회적 대응 강화 • 마을마다 문화예술창작공간과 작은 도서관 설치 • 황금권 공공도서관 건립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건강관리담당자 배치 •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 인프라 확충 • 치매위험 어르신 관리 • 맞벌이부부 아이 안전공간 확충 • 꿈나무 안심학교(방과후 아이돌봄) • 맞춤형 안심보육제도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안심귀가지킴이’ 시범 실시 • 70세 이상 ‘어르신주치의’ 제도 • 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 어르신 전용 영상미디어센터 ‘청춘’ 설립으로 취미활동·일자리 지원 • 노후설계, 건강관리, 창업교육, 재취업 교육, 여가공간 등 제공하는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설치 • 범어·만촌권 실버복지센터 건립 •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의 지정확대 및 안전시설 확충
주민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성구 곳곳 무료와이파이 존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가스 보급과 지원확대 • 공용주차장 추가 확보 • 방범용 CCTV 설치 확대 • 가로등개선(LED교체 2배 더 밝게)
동별 공약	<p>○ 고산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영장건립 • 덕원고, 시지고 남고·여고 전환 • 복지관, 문화센터 신설 • 경부선철도 소음방지 대책 • 사월동 초등학교 신설 <p>○ 범어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어시민공원 건립 • 범어 실버복지관 건립 • 범어 2,3동 주민자치센터 이전 • 범어지역 중 상향 <p>○ 황금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금도서관 건립 • 무학산공원 조기 완공 • 롯데캐슬단지 고압선 지중화 • 롯데캐슬단지 앞 고가도로 철거 <p>○ 만촌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촌3동 초등학교 신설 • 만촌2동 주민자치센터 이전 • 만촌 실버복지관 건립 • 만촌지역 중 상향 	<p>○ 고산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매초교 수영장 및 주차장 설치(신매시장 활성화와 연계) • 고산3동 주민센터-매호천 도로 조기 착공(혁신도시까지 연장) • 시지노인병원-효성백년가약아파트 도시계획도로 조기착공 • 경산방면 사월동 아파트 밀집지역 초등학교 유치 <p>○ 범어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성구민운동장 개방시간 연장 •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중 상향추진 • 신천시장/인근상가 시설 개선 지원 <p>○ 황금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전탑 지중화 • 어린이회관 본관 재건축과 진로·직업체험관 조성 • 노인종합복지관, 황금종합사회복지관 시설 확충 • 황금1동 고가교 철거 검토 <p>○ 만촌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성도서관, 화랑공원 시설과 본동 학교 교육환경·시설 개선 • 만촌역 수성대, 만촌2도 주민센터 방면 출구 신설 •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중상향 추진 • 만촌2동 주민센터 행정복지 문화복합공간으로 재건축